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49호 【루계 제2623호】

주체109(2020)년 12월 5일 토요일 음력 10월 21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1차 정치국 확대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1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11월 29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회의에 참가하시였다.

정치국 확대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당중앙위원회 중요부서 간부들과 당대회준비위원회 성원들을 비롯한 해당 인원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회의를 사회하시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준비정형을 청취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울데 대한 문제와 당사상사업부문을 강화하고 대상기관들에 당의 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정책적지도와 당적지도를 심화시키기 위하여 당중앙위원회의 해당 부서기구를 개편할데 대한 문제,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개선하고 당면한 경제과업집행을 위한 중요문제들을 주요의정으로 토의연구하고 결정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각급 당조직들의 지도기관 사업총화와 선거, 당대회에 보낼 대표자선거를 위한 당회의진행정형과 당대회문건준비정형, 당대회를 전후하여 진행할 정치문화행사준비정형을 비롯한 당 제8차대회준비사업정형에 대한 당대회준비위원회의 보고를 청취하고 나타난 일련의 편향과 대회준비위원회의 중요임무들을 지적하고 대회준비위원회가 제기한 문제들에 해당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사상사업부문을 개선강화하기 위하여 해당한 문제들을 심의하고 조직기구적문제를 승인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경제지도기관들이 맡은 부문에 대한 지도를 주객관적환경과 조건에 맞게 과학적으로 하지 못하고있으며 주관주의와 형식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있는 실태에 대하여 심각히 비판하였으며 당의 경제정책집행을 위한 작전과 지휘에서 과학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무한한 헌신성과 책임성을 발휘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당면한 올해 경제과업집행을 위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토의하고 중요결정들을 전원일치로 채택하였다.

본사기자

조국소식

동래강저수지 준공

평안북도에서 동래강저수지를 훌륭히 완공하였다.

저수지가 건설됨으로써 홍건도간석지의 수천정보에 달하는 농경지에 관개용수를 충분히 보장할수 있게 되였다.

저수지준공식이 11월 30일에 진행되였다.

태천자라공장 준공

인민들에게 맛좋고 영양가높은 자라를 먹이려는 조선로동당의 뜻을 받들고 평안북도에서 태천자라공장을 새로 일떠세웠다.

공장에는 알깨움장, 사료가공장, 종어장, 야외못을 비롯하여 양어의 과학화, 집약화를 실현할수 있는 모든 조건이 훌륭히 갖추어져있다.

1일 태천자라공장 준공식이 진행되였다.

준공식에 이어 참가자들은 공장을 돌아보았다.

본사기자

위대한 조국수호정신으로

공화국에서 근로자들이 일하는 생산현장이나 건설장들에 가보면 《위대한 조국수호자들의 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자!》라는 구호를 볼수 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전승세대들이 발휘한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을 높이 발양할것을 고무추동하는 구호이다.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이 물려준 조국수호정신은 모든 사람들을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안아오기 위한 영웅적투쟁에로 고무추동하는 정신적힘으로 되고있다.

가렬처절하였던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산야에는 흙보다도 탄피가 더 밟히였고 뭇새들도 사라지였으며 꽃들도 재가 되였었다.

그처럼 엄혹한 환경속에서 총은 모자랐고 식량은 물론 축력과 농기구 지어 종곡까지도 부족하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고한 신념과 열렬한 향토애와 조국애를 지닌 인민군용사들과 인민들은 전선과 후방에서 불사신처럼 일떠서 용감히 싸웠다.

전선의 병사들은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여 승리의 돌격로를 열었고 후방의 로동자들은 맨손으로 피대를 돌리여 총을 만들어 전시생산을 보장하였으며 농민들은 《파종도 전선이다!》라는 구호아래 식량을 생산하여 전선원호를 하였다.

가렬처절한 전화의 나날에 발휘된 전승세대의 영웅적인 투쟁정신은 전후에도 변함없이 높이 발휘되였다.

그들은 재더미로 화한 평양을 비롯한 조국강산에 복구건설에서 기적을 창조하고 천리마시대의 영웅서사시를 수놓아갔다. 자주, 자립, 자위로 빛나는 인민공화국의 자랑스러운 년대기들에는 부강조국건설에 자신들의 더운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친 전승세대의 불굴의 투쟁정신과 헌신의 자욱이 새겨져있다.

오직 자기 령도자만을 굳게 믿고 역경에도 굴함이 없이 기어이 승리를 안아오고 야마는 이 위대한 투쟁정신을 년대를 이어 간직해온 공화국인민이기에 세계적인 정치동란속에서도 천만이 성새, 방패가 되여 사회주의집을 굳건히 지키였고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도 승리적으로 돌파할수 있었다.

준엄한 전화의 나날에 창조되고 승리의 년대들과 세기를 이어 오늘도 굳건히 이어지고있는 위대한 조국수호정신은 공화국인민의 귀중한 정신적재부, 유산으로 되고있다.

오늘 국가와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발휘한 1950년대의 투쟁정신을 영원히 잊지 말고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세대를 이어 세월을 넘어 줄기차게 이어져온 위대한 년대의 투쟁정신, 투쟁전통은 오늘의 정면돌파전, 80일전투에서 더욱 높이 발휘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세기 50년대의 불굴의 투쟁정신으로 전인민적공격전을 과감히 벌려나갈 때 오늘의 난관을 물리치고 부흥번영의 래일을 앞당겨올수 있다는것이 공화국인민의 가슴마다에 간직된 신념이고 의지이다.

최금주

청년야외극장과 우리 생활

방울

◆ 평양의 명승인 모란봉의 기슭에는 수도시민들과 친숙해진 청년공원야외극장이 있다. 수십년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청소년학생들의 과외교육교양과 문화정서생활을 위해 몸소 터전을 잡아주시고 이름까지 지어주시였으며 여러차례나 현지지도하신 뜻깊은 사적이 깃든 야외극장이다. 드넓은 면적에 무대를 중심으로 반원형형태로 좌석들이 배치되여있어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수용할수 있다. 방과후에 이곳에서 모임도 가지고 즐거운 공연도 보면서 다채로운 생활을 펼쳐가던 유쾌한 청소년시절이 나이많은 사람들의 뇌리에도 깊이 새겨져있다. ◆ 시대의 변천속에 청년야외극장의 모습도 더욱 현란해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올해 정초에 평양시청년공원야외극장이 더욱 훌륭히 개건되여 준공의 테프를 끊었다. 1만여석의 관람석과 소조실 등을 비롯하여 현대적인 교육조건과 음향 및 조명설비들을 그쯘히 갖춘 야외극장은 모란봉의 아름다운 봉우리들을 배경으로 하고 대동강과 조화를 이루어 마치 한폭의 그림을 방불케 한다. 이 야외극장에서 조선로동당창건 75돐명절을 계기로 펼쳐진 뜻깊은 공연무대 《웃음많은 우리 집》은 사람들의 절찬을 자아내였다. 뛰여난 화술로 사람들에게 기쁨과 웃음만을 선사하군 하는 유명한 만담배우를 비롯한 관록있는 배우들이 출연하여 양덕온천문화휴양지에서의 생활 등 갖가지 생활소재를 가지고 출연한 만담들을 보며 객석을 꽉 채웠던 청춘남녀들은 배를 그러안고 웃었다. ◆ 최근년간 공화국각지에는 청년야외극장들이 련이어 건설되고있다. 수년전 동해의 푸른물 굽이치는 송도원에 청년야외극장이 훌륭히 개건되여 원산시의 청소년학생들과 인민들의 교육교양과 문화정서생활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지난해에는 강계청년야외극장이, 올해에는 해주와 평안남도에 청년야외극장이 멋들어지게 일떠섰다. 얼마전에는 또 사리원시에 청년야외극장이 훌륭히 건설되였다. 늘어나는 청년야외극장과 더불어 인민의 기쁨과 랑만에 넘친 웃음소리는 갈수록 더욱 커가고있다.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온 나라 강산에 더욱 뜨겁게 굽이치는 12월이다.

애국위업실현의 전기간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행렬차를 타고 쉬임없이 달리신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복무를 자신의 력사적사명으로 간직하시였다. 그이의 최대의 기쁨은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이였다.

자신께서는 세월의 눈비를 다 맞고 그 어떤 고생을 겪을지언정 인민들은 언제나 행복만을 누려야 한다는것이 그이의 웅심깊은 마음이였다. 지금도 사람들이 노래하는것처럼 펼치면 바다가 되고 쌓으면 하늘에 닿을 그이의 한생의 업적을 합치면 인민뿐이다.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전에는 강행군을 순간도 멈출수 없다는 의지를 가다듬으시고 대고조진군길의 앞장에서 달리신 장군님, 멀고 험한 건설장들에 남먼저 가는것이 습관으로 되였다고 하시며 나라의 방방곡곡으로 인민행렬차를 달리신 장군님이시다.

강추위가 계속되던 어느해 1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강도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시였다. 그이께서 계시는 렬차안에서는 새벽 3시가 넘도록 불빛이 꺼질줄 몰랐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날이 시작되였는데 좀 쉬시기를 말씀드리는 일군에게 고맙다고, 하지만 강행군길이 아닌가고 하시며 그에게 자신과 함께 다니면서 수고가 많은데 후날 우리 인민들이 모두 잘살게 될 때 오늘을 옛말처럼 추억하자고 하시였다.

이날 이른아침 강계에 도착하신 그이께서는 잠시의 휴식도 없이 새로 건설한 중소형발전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들을 돌아보시였다.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였다. 지방의 한 일군은 위대한 장군님께 자기들이 마련해놓은 곳에 숙소를 정하고 휴식하시였으면 하는 의향을 말씀드리였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고맙다고, 그러나 전체 인민이 강행군을 하는 때인데 어떻게 뜨뜻한 온돌방을 찾아다니겠는가고 하시며 받들어주는 인민들을 생각하여서라도 나는 더 긴장하게 강행군을 하여야 한다고, 자신께서는 숙소를 렬차에 정하기로 하였다고, 렬차에서 침식을 하여야 계획한 대상들을 이틀동안에 다 볼수 있다고 하시였다.

이렇듯 인민을 위한 헌신의 길에서 그토록 소중히 여기신것은 바로 시간이였다.

예나 지금이나 나에게서 제일 귀중하고 요구되는것은 시간이라고, 만일 나에게 누가 시간을 더 준다면 나는 그를 한평생 《천사》로 떠받들겠다고 하시였고 또 언제인가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위하여 더 많은것을 해놓아야 하겠는데 시간이 한초한초 흐르는것이 안타깝다고 하시며 자신께서 시계를 자주 보지 않는것은 시계를 보면 시간이 흐르는것이 너무 안타깝기때문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일분일초, 하루 한시각도 인민을 위해 바치는것을 생의 보람으로 락으로 여기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은 초강도강행군, 눈보라강행군, 철야강행군과 같은 눈물없이는 들을수 없는 전설같은 이야기들을 낳았다.

험하디험한 철령과 야전차를 밀며 오르신 오성산의 칼벼랑길, 위험천만한 최전연의 판문점초소길과 풍랑이 일어번지는 초도에로의 사나운 배길…

무한한 헌신의 강행군길우에 쪽잠과 줴기밥, 야전리발과 같은 하많은 일화들을 새겨오신 어버이장군님이시였다.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것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이였다.

그 뜻을 깊이 간직하신 어버이장군님이시기에 일군들을 만나시여서도, 이 땅의 방방곡곡 일터들을 찾으시여서도 첫 물으심은 인민에 대한 물으심이였다.

어느해인가 그이께서 평양시내에 새로 건설된 고층살림집을 돌아보실 때 있은 일이다.

방들과 부엌, 목욕탕과 위생실 등 살림집내부를 구석구석 세세히 살펴보신 장군님께서는 베란다에 나서시였다.

한동안 외경을 부감하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한 일군을 부르시더니 베란다의 한쪽 모서리에 낸 물빠지는 구멍을 가리키시며 이렇게 올려다 내면 어떻게 하는가고 부족점을 지적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눈에 잘 보이는데건 안 보이는데건, 큰것이건 작은것이건 할것없이 모든것을 집을 쓰는 사람들의 립장에서 세심하고 깐지게 자그마한 흠도 없이 해야 하며 그렇게 하는것이 인민의 충복다운 일본새이고 마음씨라고, 혹 어떤 사람들은 옥에도 티가 있다고 요란한 살림집을 지어준것만도 대단한데 그런 사소한 흠집이야 뭐라겠는가고 할수 있는데 옥에 티는 허용할수 있어도 인민을 위한 우리 일군들의 마음의 티는 절대로 허용할수 없다고 하시였다.

흔히 제일 인정많은 사랑에 대하여 말할 때 부모의 사랑을 꼽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친부모의 사랑에도 비기지 못할 크나큰 사랑으로 온 나라 대가정을 따뜻이 돌보신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다. 외진 산골이나 섬마을, 머나먼 북방의 산촌에까지 그이의 다심하신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은 없다.

주체88(1999)년 여름 어느날이였다.

량강도 대홍단군종합농장 홍암분장(당시)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제대군인의 가정을 방문하시였다.

친부모의 심정으로 생활의 구석구석을 헤아려주시는 그이께 그들부부는 부모들도 아직 와보지 못한 자기 집에 오늘 장군님께서 선참으로 오셨다고, 정말 고맙다고 고마움의 인사를 올리였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시였다.

아, 거야 응당 내가 제일 먼저 찾아와야지, 동무네 아버지, 어머니를 대신해서 말이요. …

그러시고는 오늘 가정방문을 왔는데 어떻게 그냥 헤여지겠는가고 하시며 새 집앞에서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그날의 기념사진은 위대한 장군님을 어버이로 모시고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공화국의 참모습이 그대로 비껴있는 뜻깊은 기념사진이였다.

진정 위대한 장군님을 온 나라 대가정의 어버이로 모시고 살아온 공화국인민들이기에 날과 달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도 더욱더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것이 아니겠는가.

오늘 공화국의 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를 받들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 애국의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본사기자 주일봉

씨앗과 열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사람들의 경모의 정이 더욱 강렬하여지는 그리움의 12월이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강산에 가득 차넘치고 있다.

오늘 이 땅에 마련된 수많은 기적과 변혁의 풍성한 열매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뿌리신 번영의 씨앗들이 싹트고 자라난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평생 인민에 대한 불같은 사랑을 안으시고 자신의 온몸으로, 열과 정으로 이 땅, 이 나라를 안아 꽃피우시였다.

인민들에게 만복이 꽃피는 따뜻한 봄을 주시려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궂은날, 마른날 가림없이 멀고 험한 헌신의 장정을 이어가시였다.

한자욱, 또 한자욱…

돌이켜보면 그이께서 걷고 걸으신 다박솔초소길과 철령과 오성산의 가파롭게 뻗어간 굽이굽이의 길은 조국수호, 애민헌신의 길이였다.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과 시련이 중중첩첩 막아서던 그 나날들이 지금도 사람들의 눈앞에 눈물겹게 어려온다.

엄동설한의 현지지도길우에서 얼어든 발을 찬물로 녹이시고 한점 모닥불을 지펴 구운 감자로 때식을 이으시던 장군님의 그 로고를 사람들은 잊지 못한다.

고귀한 생애의 마지막나날에도 그이께서는 맵짠 한겨울의 추위를 무릅쓰시고 애국헌신의 길을 이어가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개선청년공원유희장을 찾으신 그날도 류달리 추운 일요일이였다.

이런 날에 내가 와야 인민들이 좋은 날에 찾아온다고 하시며 그이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였다.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줘도 몰라준대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가리라의 노래를 마음속으로 부르시며 인민을 위한 좋은 날만을 위하여 눈내리면 그 눈을 다 맞으시고 비내리면 그 비를 다 맞으시며 걷고걸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은 부강조국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뿌리가 되고 자양분이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뿌려놓으신 그 많은 사랑과 행복의 씨앗들을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알찬 열매로 가꾸어가시여 나날이 희한한 전변의 새 모습들을 펼치여가는 공화국이다.

본사기자 리경월

강냉이 세이삭

어느해 가을날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일군들로부터 한 농장에서 따온 세이삭의 강냉이를 받아들게 되시였다.

그 농장 강냉이밭의 작황이 하도 좋아 경애하는 원수님께 보여드리려고 따온 강냉이였다.

방치같이 여문 강냉이이삭을 보시며 그이께서는 강냉이이삭들이 하나같이 탐스럽다고, 온 나라의 농사작황이 다 이렇게 좋으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하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 농사를 더 잘지어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들의 먹는 문제때문에 더는 걱정하시지 않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다가 문득 물으시였다. 강냉이를 가져오면서 값은 물었는가고.

사실 일군들은 강냉이 세이삭쯤이야 하고 생각하면서 밭에 있던 농장원들에게서 허락을 받고 가져왔던것이다.

이를 알게 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농장원들의 승인을 받고 안 받은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강냉이가 비록 세이삭이지만 그것도 인민의 재산이라고 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인민들의 재산을 털끝만큼도 다치지 말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고 하시였다.

순간 일군들의 뇌리에 어느해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현지지도의 길에서 한 농장원에게 참외값을 물어주신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날 그이께서는 길가의 과일매대를 보시고 좀 보고 가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면서 차를 세우도록 하시였다.

일군들이 나이지숙한 농장원을 데려왔는데 그는 주변의 과수밭을 보면서 겸사해서 과일판매도 한다고 말씀올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과일밭가까이에 과일매대를 차려놓은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고개길에 과일매대를 차려놓으니 오가는 길손들이 여기서 휴식하면서 과일을 사먹을수 있어 좋아하겠다고 하시였다.

그때 농장원이 정히 따온 한다래끼의 참외를 보시며 그이께서는 참외향기가 참 좋다고, 아바이의 성의가 고마운데 한개씩 맛을 보고 떠나자고 하시면서 참외 한알을 드시고 손수 깎으시였다.

이윽고 동행한 일군들에게 참외값을 치르라고 이르시는 그이의 말씀에 농장원은 펄쩍 뛰며 두손을 내저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러면 안된다고, 물론 우리가 맛본 참외의 값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농장원들이 품을 들여 가꾼 생산물인것만큼 값을 치르어야 한다고 하시며 참외를 잘 먹고 간다고 하시였다.

…

인민들이 올리는 자그마한 성의마저 마다하시며 오로지 인민의 행복만을 위해 헌신의 로고를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고결한 인민적풍모를 돌이켜볼수록 일군들의 가슴에서는 또 한분의 인민의 령도자를 모신 크나큰 긍지가 세차게 끓어넘치였다.

강냉이 세이삭,

비록 많지는 않아도 농민들의 땀과 정성이 깃든것이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세이삭의 강냉이를 놓고도 일군들에게 나라의 재산, 인민의 재산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를 가르쳐주신것이다.

본사기자 김철진

만민이 우러러 칭송하는 인민의 령도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국제사회계가 끝없이 칭송

진보적인류는 한평생 인민을 찾아 애민헌신의 장정을 이어가신 어버이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를 경건히 추억하고있다.

로씨야주체사상연구협회 위원장은 **김정일**동지는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고 인민의 복리를 위해 모든것을 다하신 참다운 인민적령도자의 귀감이시다, 세계 그 어디를 돌아보아도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인민을 찾아 현지지도의 길에 계신 그런 령도자는 없을것이다고 말하였다.

로씨야신문 《모스꼽스끼 꼼쏘몰레쯔》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이민위천은 **김정일**동지의 좌우명이였다.

그이께서는 자신을 근로하는 인민의 아들로 간주하시고 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그들과 국사도 론하시였다.

하나의 로선과 정책을 작성해도 인민의 요구를 반영하시고 창조물을 하나 일떠세워도 인민들의 편의와 리익을 먼저 생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끊임없는 현지지도로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가꾸시였다.

로씨야의 쁘리마—메디아통신, 신문들인 《글라스노스찌》, 《졸로또이 로그》, 인터네트신문 《예지나야 꼬레야》도 **김정일**동지의 현지지도는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창조력에 의거하는 정치활동방식이였고 끝없는 애민헌신의 로정이였다, **김정일**동지의 정치가 가장 위력하고 성공적인 정치로 될수 있은 비결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도하였다.

한 나라의 령도자로서, 인간으로서 누릴수 있는 모든것을 인민을 위한 길에 고스란히 바치신 인민적령도자가 다름아닌 **김정일**각하이시라고 하면서 민주꽁고신문 《라쁘로스뻬리떼》는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신 위대한 어버이의 따뜻한 미소를 조선인민은 언제나 심장속에 안고산다고 강조하였다.

에짚트신문 《알 아흐바르 알마싸이》는 인민사랑은 **김정일**령도자의 정치리념이였고 사색과 실천의 기초였으며 한생의 전부였다고 서술하고 이렇게 계속하였다.

인민에 대한 **김정일**령도자의 헌신과 로고는 단순히 찾으신 단위의 수자나 거리의 크기로만 헤아릴수 있는것이 아니다.

무엇이 하나 생겨도 인민을 생각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먼저 걱정하신 그이는 정녕 인민의 참된 복무자이시였다.

나이제리아신문 《나이제리언 오브저버》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일령도자는 무척 다정다감한분이시며 의리를 매우 중히 여기는분이시다.

사람들을 단번에 매혹시키는 그이의 특이한 매력은 사심없는 사랑과 고매한 풍모, 비상한 실력에 바탕을 두고있다.

조선이 아름다운 인간화원으로, 하나의 대가정으로 불리우는것은 **김정일**령도자께서 지니신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정이 그대로 정치에 반영된것이라고 할수 있다.

파키스탄자력갱생연구협회 위원장, 탄자니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서기장, 쿠웨이트조선친선협회 위원장도 **김정일**각하께서는 한평생 애국애민의 길을 걸으시며 사회주의조선을 빛내이시고 김일성민족의 존엄을 누리에 떨치시였다, 인민을 위한 헌신의 길에 자신을 초불처럼 불태우신 그이의 혁명생애는 참말로 위대한 인민적령도자, 자애로운 어버이의 한생이였다고 격정을 터치였다.

영국혁명적공산당(맑스—레닌주의) 총비서는 이렇게 강조하였다.

력사에는 수많은 위인들과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김정일**동지처럼 인민을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친 령도자는 없었다.

령도자는 인민을 하늘처럼 믿고 인민은 령도자를 어버이로 믿고 따르며 절대적인 신뢰심과 흠모의 정을 신념으로 간직하고있는 나라는 오직 지구상에 조선밖에 없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류의 심장속에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신다.

본사기자

선물식물

꽃계수나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중화인민공화국 계림시민들을 대표하여 중국 광서장족자치주 계림시 시당서기가 주체65(1976)년 설명절을 맞으며 올린 선물식물이다. 꽃계수나무는 계림시의 특산식물이며 이름난 고급향료 원료식물이다.

계림시민들이 꽃계수나무를 선물로 올리려고 한것은 이 나무가 조선에서도 무성하게 자라 영원토록 꽃향기를 풍기라는 뜻에서 그리고 인민들에게 더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에 깊이 감동되여서이다.

계림시당서기는 《우리는 우리 지방의 특산식물이며 나라의 재부인 꽃계수나무를 선물로 올리기로 하였고 모두가 선물을 마련하는데 달라붙었으며 모든 정성을 다하였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시당서기와 양묘장일군들은 나무생김새가 매우 좋고 잘 자란 꽃계수나무 10그루를 선정하여 겨울인 조건에서 꽃계수나무묘목이 얼거나 상할세라 정성을 다하여 포장하였다.

시당서기는 위대한 장군님을 흠모하는 계림시민들을 대표하여 선물을 정중히 전해드릴것을 중국을 방문한 조선로동당대표단 단장에게 부탁하면서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우리들의 이 소박한 선물을 받아주신다면 저와 계림시민들은 더없는 영광으로, 행복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꽃계수나무를 선물로 올리는것은 인민들에게 더욱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나무가 조중친선의 영원한 상징으로 조선에 가서도 무성하게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조중친선을 위하여, 조선의 부강발전과 조선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라고 말하였다.

본사기자

장군님의 뜻과 유훈을 받들어

12월의 날과 날을 맞고보내는 공화국인민들의 마음속에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절절한 경모의 정이 차넘치고있다.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인민들의 다함없는 그리움에는 장군님의 뜻과 유훈대로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그이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빛나게 실현하려는 고결한 충정의 열의가 비껴있다.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는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향유하는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고 념원이였다.

나라와 인민의 운명과 미래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지니신 그이께서는 가장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헌신으로 조국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다 바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불면불휴의 사색과 로고로 륭성번영의 웅대한 설계도를 무르익히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 나라 방방곡곡을 찾아가신 애국헌신의 장정은 지구둘레를 근 17바퀴나 돈것과 맞먹는 167만 4610여리를 헤아린다.

그 려정에는 자신의 걸음이 늦어지면 조국의 전진이 떠진다고 하시며 쪽잠으로 휴식을 대신하고 줴기밥으로 끼니를 에우신 이야기도 있고 오성산의 칼벼랑길에서 지쳐내리는 야전차를 밀고 오르신 순간도 있으며 파도사나운 배길을 항해하여 초도의 군인들을 찾으신 이야기, 운전대를 잡으시고 철령의 험한 길을 넘고넘으신 만단사연도 깃들어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이끄신 그 나날 무슨 일을 하나 하여도 먼 후날에 후대들이 덕을 볼수 있게 가장 훌륭하게, 완전무결하게 하여야 한다는것, 그 어떤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조국을 지켜야 한다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고 당부였다.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드팀없는 의지와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자랑찬 현실로 펼쳐지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위업을 실현하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든 사색과 활동의 출발점이며 총적지향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련이어 펼치시는 원대한 구상과 설계도도 장군님의 념원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것이고 그이께서 이어가시는 현지지도의 장정도 장군님께서 사랑하신 인민에게 모든 영광과 행복을 다 안겨주기 위한데 있다.

최근년간 국방력강화와 경제발전,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장엄한 투쟁과정에 혁신적성과들과 기적들이 다계단으로, 련발적으로 이룩된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과 리상을 빛나게 실현하여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공화국인민이 올해 년초부터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자연재해를 비롯한 엄혹한 도전을 강행돌파하며 2020년을 투쟁의 해, 전진의 해, 단결의 해로 빛내이고있는것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위대한 장군님의 뜻과 념원을 실현하는 길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인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뜻과 유훈을 받들어나가는 길에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부강번영, 행복이 있다는것을 절대불변의 진리로 새겨안은 공화국인민은 사회주의강국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애국충정을 다하고있다.

민경남

매혹과 흠모

다심하고 사려깊은 어버이사랑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은 언제나 녀성들을 아끼고 내세워주시며 보람찬 삶을 누려가도록 세심히 보살펴주고계신다.

공화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어머니날, 3.8국제부녀절을 맞는 녀성들을 축하하여 펼쳐지는 황홀한 공연무대들, 김정숙평양방직공장과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의 로동자합숙들과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등 녀성들을 위해 베풀어지고있는 전설같은 이야기들을 놓고서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그이께서는 언제인가 평양화초연구소를 찾으시였을 때에 어머니날에 꽃방에서 꽃을 사가지고 가서 어머니들에게 드리면 그들이 좋아할것이라고, 그렇게 하면 사회적으로 녀성들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세우는데도 좋다고 하시였고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이 새집들이를 할 때에는 녀성들을 위하여 그릇세트를 마련하시여 새집들이를 축하해주기도 하시였다. 동해포구를 찾으시여서는 한창 물고기선별작업을 하는 녀성들의 수고를 헤아려 엄지손가락을 쳐들어보이시며 그들을 향해 거듭 허리굽혀 인사도 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뜻한 품속에서 공화국녀성들은 가정과 사회의 꽃으로 자기의 존엄을 빛내이며 삶의 희열을 한껏 누리고있다.

세계적으로 녀성들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있다. 그러나 세상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공화국처럼 녀성들이 자주적존엄과 권리를 지니고 값높은 삶을 누리는 나라는 없다.

특히 국가가 녀성들의 건강을 돌봐주는것을 정책화, 제도화하고 천만금을 들여 현대적인 병원들을 세워주어 평범한 녀성들이 무상으로 특별의료봉사를 받는 나라는 공화국뿐이다.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녀성들의 천국》이라 부러움을 금치 못하는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에도 녀성들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전해지고있다.

몇해전 유선종양연구소 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유선종양연구소는 녀성들을 위하여 마음먹고 꾸리는것만큼 모든 요소들이 세계적인 수준이 되게 하여야 한다고, 우리 녀성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며 우리 녀성들을 위한 일인데 털끝만큼도 아수한것이 없이 해주고싶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입원실들에는 호텔들에 놓는 랭동기를 놓아주되 립식으로 만든것이 아니라 책상식으로 만든것을 놓아주어야 한다고, 액정텔레비죤을 보내주면 탁에 놓지 않고 벽에 걸어놓고 볼수 있다고, 그러면 입원실이 좁아지지 않아 환자들에게 편리할것이라고, 래일 아침 당장 보내주겠다고 거듭거듭 은정깊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이렇듯 다심하고 사려깊은 어버이사랑이 있어 녀성들을 위한 사랑의 궁전인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가 손색없이 꾸려지게 되였던것이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국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후대들을 키우는 어머니로서의 녀성들의 역할은 누구도 대신할수 없다고, 어머니라는 친근하고 다정한 부름에는 후대들을 위해 천만고생을 락으로 달게 여기며 사랑과 정을 바치는 녀성들에 대한 사회적존중과 높은 기대의 뜻이 담겨져있다고, 녀성들이 없으면 가정도 사회도 나아가서 조국의 미래도 있을수 없다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온 나라 녀성들에 대한 이렇듯 뜨거운 정과 사랑을 지닌분이 시기에 이 땅에는 숭고한 사랑의 화폭들이 수놓아지고있는것이 아니겠는가.

하기에 아일랜드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은 자기의 인상담에서 조선에서 받은 가장 큰 충격은 사회주의제도의 혜택아래 녀성들이 누리고있는 행복넘친 생활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피력하였다.

《조선에서는 녀성들이 남자들과 꼭같이 로동의 권리를 향유하고있을뿐아니라 사회적인간으로서의 발전권도 충분히 보장받고있다. 평범한 녀성로동자가 영웅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되고있는것이 바로 조선의 현실이다. 녀성들이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사회생활을 할수 있도록 국가가 모든 조건을 보장해주는 조선의 사회주의제도는 서방의 녀성들에게 있어서 환상의 세계가 아닐수 없다.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없고 지어낼수도 없는 현실이 펼쳐진 조선이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녀성들의 천국이며 리상국이다. 세상에 다시 태여날수만 있다면 조선의 녀성으로 태여나고싶다.》

정녕 세계가 부러워하는 녀성중시의 정치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공화국의 녀성들의 앞길엔 언제나 따뜻한 봄날만 있을것이다.

본사기자 유금주

어제날의 《숨쉬는 화석》이 백살장수자가 되였습니다

예로부터 죽은자는 산자로 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옥행은 락원행으로 바뀔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허나 저의 운명은 인생의 이 궤도를 부정하였습니다.

저는 남조선의 감옥에서 다 죽었던 사람입니다.

긴긴 세월 철창속에서 《숨쉬는 화석》으로 불리우던 제가 오늘은 사회주의조국의 품에서 백살장수자가 되였습니다.

옥살이에서 폐인이 되였던 제가 장수복을 누려가고있는것은 참말로 기적이라며 사람들마다 놀라워하고있습니다.

제가 누리는 장수복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행운도, 하늘이 베푼 은총도 아닙니다.

수령이 위대하고 우리 당이 위대하여 누리는 장수복이 아니겠습니까. 절세위인들의 뜨거운 사랑이 재생의 활력소가 되여 백살장수복을 누려가는 오늘의 이 행복을 생각하면 가슴이 젖어듭니다.

죽음의 나락에서 구원해주셨습니다

세상에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처럼 수십년세월 원쑤들의 갖은 악형속에 삶과 죽음의 문턱을 수없이 넘나든 사람들은 없을것입니다.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나섰다가 체포되여 기나긴 세월 고통속에 보낸 감옥은 말그대로 지옥이였고 산 무덤이였습니다.

장기간의 감옥생활과 짐승도 낯을 붉힐 야수적인 고문, 비렬하고 간교한 심리공작은 비전향장기수들의 정신과 육체를 사정없이 짓밟아버렸습니다.

자기 수령의 사상에 충실하며 그 사상을 지켜 육체도 서슴없이 부스러뜨리는 통일애국투사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너무도 모르는 원쑤들은 어떻게 하나 우리를 굴복시켜보려고 상상을 초월하는 갖은 고문을 다 들이댔습니다. 비행기고문, 물고문, 전기고문, 고추가루고문, 강제급식고문…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사정없이 짓밟아버리는 악착한 고문으로 감방바닥과 복도는 온통 피칠갑을 했고 처절한 비명소리에 육중한 감옥건물도 몸부림쳤습니다.

관속과도 같은 독감방에 갇혀 무더위와 추위, 굶주림에 시달려야 하는 고통을 체험해보지 못하고는 다는 모를것입니다.

전향을 강요하는 교형리들의 악착한 고문으로 하여 뼈가 부스러지고 살점이 떨어져나가던 그 모진 정신육체적고통을 어찌 한두마디로 다 표현할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은 불사조마냥 굴하지 않고 싸웠으며 가슴속깊이 간직한 수령에 대한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살고싶다는 욕망에 유혹되면 신념을 지킬수 없게 된다는것이 저의 의지였습니다.

서리낀 철창속에서 억사철사로 손과 발을 묶이우고 갖은 고문으로 뼈가 부서지고 살점이 얼어터질 때에도 위대한 수령님은 신념의 기둥이시였습니다.

한번은 나를 고문장으로 끌어낸 교형리들이 팔과 다리를 묶고 물이 가득한 통에 처넣었습니다.

놈들이 물속에서 끌어내여 《전향하겠는가?》고 물을 때마다 《안한다!》 하고 한본새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물속에 처넣기를 그 몇번…

삶과 죽음의 문턱을 수시로 넘나들게 하는 고문으로 끝내 정신을 잃자 놈들은 나를 짐짝처럼 내동댕이쳤습니다.

참으로 말이나 글로 표현할수 없는 악착한 고문이였습니다.

비전향장기수들이라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날 감언리설을 늘어놓으며 전향을 설교하던 놈들은 그것이 통하지 않게 되자 미친듯이 달려들어 마구 두들겨패기 시작했습니다.

가혹한 몽둥이세례와 가죽채찍고문으로 피투성이가 되여 나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형언할수 없는 고통속에 의식은 가물가물 흐려졌습니다.

서서히 생명이 꺼져가는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였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해방후 공화국의 품에 안겨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던 못 잊을 그날이 삼삼히 떠올랐습니다.

그날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원산에서 북조선로동당 강원도 및 원산시열성자련석회의가 열리였던 뜻깊은 날이였습니다.

당시 저는 그 회의에 참가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처음으로 몸가까이에서 뵙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였습니다.

정녕 꿈은 아닌지. 나라없던 그 세월 2천만동포의 구세주이신 **김일성**장군님을 뵙고저 보천보로, 동북으로 발이 닳도록 다녔으나 끝내 소원을 이루지 못했던 저였습니다.

꿈결에도 뵙고싶던 어버이수령님을 몸가까이에서 뵙고보니 솟구치는 격정을 누를길 없어 눈물로 두볼을 적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제일 앞에 앉아있는 저를 보시고 다정히 웃음을 지으시였습니다.

젊으신 그이의 미소는 봄날의 따사로운 해님처럼 안겨왔습니다.

그날 저는 회의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인 교시를 심장에 쪼아박듯 수첩에 또박또박 적어나가며 마음속으로 맹세다지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좌우명으로 삼고 혁명을 해나가리라!

오로지 수령님만을 믿고 일편단심 그이만을 따르는 참된 혁명가가 되리라!

그날에 뵈왔던 우리 수령님의 해빛같은 미소를 그려보느라니 먹방안이 환해지는듯싶었습니다. …

철창속에서의 하루하루는 이렇듯 전향을 강요하는 통일의 원쑤들과의 사생결단의 대결로 흘러갔습니다.

쇠덩이도 녹이 쓸어 구멍이 뚫리고 바위도 닳아 자기의 모습을 잃는다는 긴긴 세월 살아서는 감옥문을 나서리라고 생각 못했던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을 불사의 힘으로 지켜주시고 꽃수레에 태워 사회주의조국의 품으로 데려오신분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시였습니다.

돌이켜보면 비전향장기수들은 민족분렬의 오랜 세월에 묻혀버린 사람들이였습니다.

손발을 얽어맨 철쇄와 높디높은 감옥의 담벽은 우리의 생사여부에 대한 소식조차 끊어버렸고 대문을 열어놓고 돌아올 사람을 애타게 기다리던 가족들도 살아서 만날 생각을 오래전에 단념해버리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남쪽의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우리모두를 조국의 품으로 데려오도록 하시였습니다.

온 행성을 끓어번지게 하였던 주체89(2000)년 9월 2일, 판문점분리선을 넘어선 저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만세!》를 목청껏 웨쳤습니다. 그것은 옥살이 32년세월이 삽시에 녹아내린 격정의 분출이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 아니시였다면 저는 남쪽에서 열번도 더 죽은 몸이였을것입니다. 장군님께서 조국의 품으로 데려오도록 하시였기에 지옥의 무덤에서 영광의 절정에 올라설수 있었고 무병장수를 누려가는 오늘의 제가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진정 어버이장군님은 고결한 동지적의리로 혁명전사 한사람한사람을 붉은기에 휩싸안아 대오에 세워주고 운명을 지켜주신 위대한 은인이시였습니다.

백발에도 젊음을 주시였습니다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이 은혜로운 태양의 품에 안긴 때로부터 20년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남조선의 철창속에서 보낸 32년세월이 삶을 빼앗기고 무덤으로 가는 죽음의 낮과 밤이였다면 조국에서 보낸 20년은 시들어버린 고엽이였던 이 몸이 새 삶을 받아안고 인생의 청엽으로 바뀌여진 꿈같은 나날이였습니다.

판문점분리선을 넘어설 때만 해도 우리들중에 성한 사람이란 한명도 없었습니다. 30~40년의 옥살이로 피끓던 홍안의 시절은 간곳없고 늙고 병약한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대에 감옥에 들어가 늙고 병든 칠순로인이 되여 그것도 지팽이에 의지하여서야 간신히 철창속에서 나올수 있었습니다.

경기도 이천의 자그마한 집에서 타버린 초불마냥 생명이 꺼져가는 저를 두고 사람들은 몇해를 넘기지 못할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상밖에 던져졌던 저를 한품에 안아주시고 고목에도 꽃을 피워주신 우리 장군님 아니시였다면 오늘 내가 어떻게 되였을가 하고 생각하면 자꾸만 눈물이 납니다.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길을 신념과 의지로 빛내인 비전향장기수들을 모두 금방석에 앉히고싶다고, 우리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하시며 우리들이 세상에 부러운것 없이 여생을 보내도록 육친의 정과 사랑을 다 기울여주신 장군님이시였습니다.

우리를 신념과 의지의 강자로 불러주시며 조국통일상이 번쩍이는 가슴에 공화국영웅메달을 안겨줄 때 저는 고문장에서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로 옷자락을 적시였습니다.

좁디좁은 0.75평 독감방에 갇혀 수십년을 살다보니 고독을 싫어하는 우리들의 심정을 헤아리시고 행복의 웃음 차넘치는 수도의 한복판에서 그립던 인민들과 어울리며 조국의 벅찬 숨결을 느끼도록 제일가는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신 어버이장군님이시였습니다.

사랑에 주리고 메말라 터진 가슴들을 덥혀주시고 얼어든 마음도 녹여주시는 따뜻한 정으로 춘하추동 계절따라 일식으로 갖추어주신 옷들이며 식성과 입맛까지 모두 헤아려 알알이 골라 보내주신 오곡에 갖가지 식료품들…

아플세라 의사선생이 찾아오고 산삼, 록용 등 귀한 보약들도 안겨준 그 정성은 병든 저의 몸을 일으켜세우고 죽음을 이기게 한 불사약이였습니다.

멀건 소금국마저 고무신짝에 받아 마셔야 했던 제가 정성껏 차려주는 푸짐한 식탁에 앉아 환하게 웃음지었습니다. 생일이면 생일상을 차려주고 명절이면 연회상에 앉혀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기억도 삭막해지기마련이지만 당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이 더욱 따뜻하게 저를 비롯한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의 삶에 흘러들고있습니다.

어버이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삼복철의 무더위도 아랑곳없이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면서도 우리들의 건강을 념려하시여 휴양길과 료양길, 천하절승들에로의 탐승길도 마련해주시였습니다.

산천구경 한번 못하고 물소리, 새소리 한번 못 듣고 손바닥만한 철창으로 해빛이 들어오면 그것이 너무도 귀해 두손에 담아보던 제가 대자연의 명산속에서 철부지시절로 돌아가 아— 오— 웨쳐도 보고 맑은 물에 뛰여도 들고 가족들의 청에 끌려 노래도 불렀습니다.

늙고 병마에 시들어 얼마 살지 못한다던 제가 옛말에 나오는 백발장수마냥 백두산으로, 금강산으로, 묘향산으로 훨훨 날아서 올랐고 걸음마다 웃음이 절로 나는 지하철경 룡문대굴의 끝까지 걸어서 내려갔습니다.

온몸을 어루쓸던 송도원백사장의 푸른 물결은 옥살이상처를 말끔히 씻어주는 다정한 손길이였고 베개머리에 울리던 밤파도소리는 목메여 잠 못 들던 이 몸에 정깊게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자연의 해빛도, 살진 대지도 고목에는 꽃을 피우지 못하건만 인생의 황혼기에도 청춘을 꽃피워주는 절세위인들의 따뜻한 사랑이 있어 감옥속에 영영 묻고 온줄 알았던 젊음을 되살려 사랑도 건강도 모두 되찾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통일애국투사로 인생의 값높은 영광을 빛내여나가도록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속에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 경축행사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비롯한 여러 대회들에 대표로 참가하는 영광도 받아안았습니다.

지난 7월 제6차 전국로병대회의 연단에서 우리 당은 로병동지들이 앞으로도 로당익장하여 영광스러운 한생을 빛내여나가도록 모든 정성을 다해 모실것이며 동지들의 건강과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뜨겁게 새겨안으며 눈시울을 적시였습니다.

로동당세월과 더불어 장수자대우를 받으며 락을 누리는것만도 분에 넘치는데 얼마전에는 백번째 생일을 맞는 저에게 사랑의 생일상까지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십니다.

오래 살고싶어하는것은 인간의 한결같은 소망입니다.

허나 그 소원은 어느 사회에서나 다 이루어지는것이 아닙니다.

지구상에 사회와 가정의 보호를 받으며 여생을 편안히 보내야 할 나이에 아무런 사회적보호도 없이 절망과 고통속에 불우하게 생을 마치는 년로자들이 그 얼마나 많습니까.

올해에도 세계를 커다란 불안과 공포속에 몰아넣은 악성전염병과 큰물, 태풍피해로 헤아릴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있습니다.

하지만 조국수호전, 인민사수전의 진두에서 열렬하고 희생적인 사랑과 헌신으로 인민들의 운명과 미래를 지켜주고 꽃피워주시는 위대한 은인을 모시여 남조선 같으면 이미전에 세상을 떠났을 비전향장기수들이 무병무랄하여 60청춘, 90환갑을 노래하고있습니다.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이 너도나도 즐겨 부르는 노래 《세월이야 가보라지》의 구절구절은 그대로 행복한 우리 삶의 메아리라고 생각합니다.

봄시절은 멀리 흘러 우리 인생
가을인데
검은 머리 희였어도 그 시절이
푸르르오
로동당의 은덕으로 황혼기도
청춘이니
세월이야 가보라지 우리 마음
늙을소냐
…

그렇습니다.

수령복, 당복이 있어 우리 인민이 누려가는 장수복도 있습니다.

예로부터 하루 입은 은혜 백날에도 다 갚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늘같고 바다같은 절세위인들의 사랑과 은정을 받아안기만 하고 보답이 따르지 못해 송구스러운 마음을 누를길 없는 저입니다.

남쪽땅에서 우리 수령님이 너무도 그리웠고 우리 당의 품이 너무도 그리워 언제면 이 소원이 이루어질가 애태워온 저로서는 모든 소원이 성취된 오늘 장수복을 누리게 해주신 절세위인들의 은정을 자나깨나 잊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매일, 매 시각 우리 원수님을 받드는 길에 여생을 다 바쳐갈 마음뿐입니다.

비전향장기수 장호

혼연일체의 힘으로 전화위복의 기적을 창조한 조선

승리의 희열과 랑만에 넘쳐

이해의 마지막 12월이다.

달력의 마지막장을 펼친 지금 흘러온 한해를 긍지롭게 돌이켜보는 인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공화국의 인민들일것이다.

지금 어디를 가나 사람들의 표정은 밝다. 수도에서 보나, 지방에서 보나 인민들의 얼굴에는 기쁨의 웃음이 넘치고 신심과 랑만이 가득하다.

흘러온 열한달을 돌아다보면 공화국인민은 얼마나 힘겨운 고난과 역경을 헤치며 왔던가.

년초부터 악성비루스감염증이 세계를 휩쓰는 속에 례년에 없는 큰물과 태풍이 련이어 겹쳐들었다. 봄내 여름내 땀흘리며 지은 곡식들이 물에 잠기고 많은 집들이 침수파괴되였으며 도로가 끊기우고 다리가 무너지는 등 그 피해는 이루 헤아릴수 없었다.

큰물과 태풍이 서해안지역을 휩쓸기 바쁘게 또다시 강력한 태풍이 강원도와 함경남북도지역을 휩쓸고 지나갔다.

서방언론들은 《북조선이 제재, 악성전염병사태, 자연재해라는 3중고로 경제적어려움이 클것》이라며 저마다 목청을 돋구었었다.

그처럼 힘겨웠던 이해의 달과 달이였다.

하지만 한해가 저물어가는 지금 기쁨의 웃음 넘치고 승리의 북소리가 련속 울리는 곳은 다름아닌 조선이다. 역경을 딛고 우뚝 일떠서 제 힘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킨 조선이다. 국가와 인민이 견인불발의 의지로 난관을 이겨내며 투쟁 또 투쟁하여 온것이 이 땅우에 풍성한 열매로 주렁지고있는것이다.

지금 공화국의 피해지역 그 어디에나 희한한 새 집, 새 마을들이 일떠서서 사회주의 새 선경을 펼치고있다.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가 새집들이로 들썩한데 이어 함경북도 김책시의 여러 피해지역들에서, 강원도 김화군 읍지구와 초서리, 연송리를 비롯한 17개 리, 로동자구에서 새집들이풍경이 또다시 펼쳐졌다. 태풍으로 혹심하게 파괴되였던 검덕지구에서만도 2 000여세대나 되는 새 집들이 일떠서 날마다 명절처럼 흥성이고있다. 며칠전에는 자연의 광란이 휩쓸고 지나갔던 함경남북도, 라선시의 피해지역들에 수천세대의 살림집들이 일떠서고 흥겨운 새집들이경사가 또 났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비단 피해지역들만이 아니다.

10여개의 동, 리에 수천세대에 달하는 새 문화주택들이 꾸려져 산간문화도시 삼지연시가 자기 모습을 또 한번 변모시키고 전국도처에 청년야외극장과 양로원, 김치공장, 샘물공장, 버섯공장등이 일떠섰다. 어제는 또 신의주방직공장 로동자합숙이 번듯하게 건설되여 사회주의문명의 창조자, 향유자로 복된 삶을 누리게 된 방직공처녀들의 웃음소리가 창가마다에 울려퍼지고있다.

하루밤 자고나면 어디서 새집들이경사가 났다는 소식, 또 새 공장이 일떠섰다는 소식, 어느 마을, 어느 리의 인민들이 가슴에 차넘치는 감격과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렸다는 소식이 신문지면을 가득 채우며 온 나라를 흥성이게 하고있다. 어딜 가나 명절이고 어딜 보나 기쁨의 춤판이다.

더 큰 용기와 신심, 비상한 열정과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발전과 번영에로의 진군을 시작한 공화국은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로일남

수필 웃음꽃이 만발했네

얼마전 퇴근길에서였다.

평양역—만경대로선궤도전차에 몸을 실은 나의 귀전에 흥겹게 들려오는 노래가 있었다.

궤도전차방송에서 울려나오는 《웃음꽃이 만발했네》였다.

여보소 동무네들 말씀 좀 물읍시다
여기 있던 집들중에 삼돌이라 살았는데
고층건물 줄졌으니 어데 간지 아시나요
아하 알구말구 저기 보이는 보통강기슭에
구름 뚫고 솟아오른 천리마 거리 삼호동에 이사했소
…

흥취나는 노래선률에 궤도전차안의 누구나 미소를 떠올렸고 흥얼흥얼 코노래로 따라부르는 사람, 어깨를 들썩이는 사람들도 있었다.

차안에 노래가득, 웃음가득 피여나는데 문뜩 취재길에서 목격했던 함경남도 홍원군의 새집들이광경이 떠올랐다.

그때에도 온 마을이 들썩하게 이 노래가 울려퍼졌었다.

궁궐같은 새 살림집을 받아안은 감격과 기쁨, 넘쳐나는 행복을 노래에 담아 마을사람들은 함박웃음을 터뜨리며 덩실덩실 춤판을 벌리였었다.

노래 《웃음꽃이 만발했네》.

나라없던 그 세월 피눈물을 뿌리며 살아가던 토성랑에 웅장화려한 천리마거리를 일떠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절한 체험을 구수한 시어와 활달하고 락천적이며 경쾌한 선률로 형상한 노래가 처음으로 불리워진지도 이제는 수십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인민들은 오늘까지도 이 노래를 무척 사랑하고 즐겨 부르고있다. 흘러온 사회주의생활이 그대로 기쁨이고 웃음으로 되여왔기때문이다.

지금도 이 땅의 현실은 이 노래처럼 흘러가고있다.

창전거리, 은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와 천지개벽된 삼지연시…

나날이 변모되는 조국의 모습과 함께 수많은 인민의 삶의 터전, 행복의 보금자리가 곳곳에 일떠섰다.

올해에도 악성전염병의 전파와 파괴적인 자연재해의 후과로 행성의 도처에서 절망과 탄식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오지만 공화국에서만은 자연의 광란이 휩쓴 페허우에 리상문명사회에 어울리는 문화주택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그칠 날이 없다. 얼마전에도 자연의 대재앙으로 모든것이 탕수에 잠기고 돌무지밑에 묻혀 집주인들마저 제 집을 알아볼수 없었던 산악협곡지대인 검덕땅에 2 300여세대의 단층, 소층, 다층살림집들과 공공건물, 공원이 번듯하게 꾸려져 온 나라를 더욱 흥성이게 했다.

희한한 새 집을 받아안고 너무 좋아 웃고 떠들며 기쁨의 춤판을 벌리는 검덕의 주민들, 그들이 하나같이 눈물을 머금으며 터친 심장의 웨침은 《경애하는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였다.

재해를 당해 한지에 나앉았던 주민들, 그들이 한날한시에 훌륭한 새 집들의 주인으로 된것은 결코 하늘이 준 복이 아니다.

인민사랑의 최고화신이신 우리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큰 복이다.

재난이 많이 닥쳤던 이해에 원수님은덕으로 이 땅의 어딜 가나 웃음꽃이 만발하고있다. 노래소리 높아가고있다.

…
아하 그렇지 그래 여기도 새 집
아하 그렇지 그래 저기도 새 집
수령님은덕으로 웃음꽃이 만발했네
어허 어허허 얼싸 좋네
어허 어허허 우리 살림 얼싸 좋네

김영범

동해북변의 천지개벽

함경남북도, 라선시에서 피해지역들에 수천세대의 살림집들을 일떠세우고 새 집들이 진행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정을 다해 보살피는 어머니당의 손길아래 자연의 대재앙이 휩쓸었던 동해북변에 사회주의선경마을들이 솟아나 천지개벽을 펼쳐놓았다.

함경남도 신포시, 단천시, 리원군, 덕성군, 북청군, 함경북도 청진시, 김책시, 어랑군, 길주군과 라선시 선봉구역 등 재해지역들에 일떠선 수천세대의 희한한 새 살림집들은 인민의 불행을 가셔주는것을 가장 중차대한 혁명사업으로 간주하고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가는 조선로동당이 펼친 인민사수전의 빛나는 결실이다.

지난 8월부터 9월사이에 공화국을 휩쓴 태풍과 폭우로 인하여 많은 지역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혹심한 피해를 입었으며 함경남북도와 라선시에서도 수천세대의 살림집들과 공공건물이 무너지고 수재민들이 한지에 나앉는 상황이 조성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가셔주기 위한 피해복구전투가 벌어지는 전구가 바로 우리 당이 전력을 투하해야 할 최전선이라고 하시며 군민일치,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으로 전화위복의 기적적성과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진두지휘하시였다.

만사를 미루시고 피해지역들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연재해복구전투조직을 위한 당중앙위원회 정무국 확대회의도 현지에서 소집하시였으며 피해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건설력량편성문제와 설계, 자재보장문제에 이르기까지 즉시적인 대책들을 세워주시였다.

조선로동당의 걱정과 보살핌의 손길로 피해지역 인민들을 극진히 위로하고 한시바삐 재난을 가셔주려는 의지를 안고 복구전구로 급파된 인민군장병들과 해당 도, 시, 군의 건설자들은 결사의 투쟁을 벌려 조선로동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과 발전하는 시대적요구, 인민의 지향이 철저히 구현된 살림집들을 짧은 기간에 훌륭히 일떠세웠다.

어려움과 곤난을 강의하게 이겨낸 피해복구의 나날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뭉친 공화국의 일심단결이 더욱 굳건히 다져지고 령도자를 따르는 길에 오늘의 행복도, 더 좋은 래일도 있다는 철리가 인민의 심장속에 신념으로 더욱 깊이 뿌리내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속에 훌륭히 일떠선 새 마을들에서 살림집입사모임들이 진행되였다.

모임들에서는 축하연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새집들이경사를 맞이한 주민들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그들은 세상이 보란듯이 솟아난 살림집들에는 인민의 행복과 복리를 위해 멀고 험한 현지지도의 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불같은 애국헌신이 깃들어있다고 강조하였다.

세상에 나라도 많지만 우리 인민들처럼 복받은 인민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하면서 그들은 피해지역 주민들과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의 열화같은 충성의 마음을 담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연설자들은 당의 대해같은 은정을 언제나 가슴깊이 새겨안고 모든 근로자들이 초소와 일터마다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함으로써 오늘의 전인민적인 총진군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들에서는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수여하는 살림집리용허가증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속에 전달되였다.

이어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량없는 사랑에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토론자들은 그 어떤 풍파에도 끄떡없을 만복의 터전을 안겨준 어머니당의 은덕에 충성다해 보답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어 새집들이가 진행되였다.

자연재해의 흔적을 말끔히 가시고 훌륭히 일떠선 문화주택지구들로 이사짐을 실은 자동차들이 줄지어 도착하였다.

멋들어진 새 집을 받아안은 것이 너무도 기쁘고 꿈만 같아 마을의 곳곳에서 주민들이 흥겨운 노래소리에 맞추어 춤판을 펼쳐놓았다.

별세상과도 같이 솟아오른 선경마을들의 살림집뜨락에 들어서는 주민들의 얼굴마다에는 위대한 인민사랑의 정치로 만복의 터전을 가꾸어주고 밝은 웃음과 미래를 더 활짝 꽃피워주는 어머니당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의 정이 어려있었다.

세상부럽지 않게 꾸려진 문화농촌마을과 살림집들을 보며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신 사회주의 내 조국은 그 어떤 자연의 광란속에서도 인민의 락원으로 세세년년 부강번영하리라는것을 다시금 확신하였다.

함경남북도와 라선시의 일군들이 새 집에 입사하는 가정들을 찾아 축하해주었다.

행복의 보금자리에 새살림을 편 피해지역 주민들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의 나라, 사회주의조국을 더욱 빛내이기 위해 성실한 애국의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갈 열의에 넘쳐있었다.

본사기자

미군기지반대투쟁 활발
남조선 각지에서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얼마전 경상북도 포항에서 수성사격장반대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비롯한 포항주민 수백여명이 《주민동의없는 격납고 반대한다》, 《엄마! 아빠! 헬기 꼭 치워주세요》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남조선강점 미군의 직승기훈련중단과 사격장폐쇄촉구집회를 열었다고 한다.

집회에서 주민들은 60여년간 군사시설로 인한 재산권침해, 군용기소음피해, 각종 폭발 등으로 불안을 견딜수가 없다고 하면서 군사시설의 반환을 촉구하였다고 한다.

이에 앞서 경상북도 성주에 있는 《싸드》기지주변에서도 지역주민들과 《싸드》기지반대단체들이 《COVID-19와중에 대규모작전이 웬 말이냐》,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불법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하라!》 등의 구호를 웨치며 《싸드》기지공사에 필요한 자재반입을 반대하는 롱성투쟁이 진행되였다고 한다.

부산시에서는 각계층 인민들이 남조선강점 미군의 부산항 8부두 세균실험의혹에 이어 싸이렌소동까지 벌어진것과 관련하여 《주한미군의 세균실험해명은 신뢰하기 힘들다.》, 《시민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하면서 세균실험시설폐쇄를 위한 주민투표를 광범히 전개하였다고 한다.

한편 남조선의 《경향신문》은 남조선강점 미군이 반환할 예정인 서울 룡산미군기지의 일부 지역들을 환경조사한 결과 토양오염정도가 심각한 수준인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하였다.

환경로동위원회 환경부 관계자는 조사결과를 놓고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환경조사에서 심각한 오염이 확인된것만큼 오염정화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오염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미군측이 정화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고 언론은 전하였다.

이러한 소식들을 보도하면서 남조선언론들은 각지의 미군기지들에서 《해마다 1 000여건이상의 미군범죄가 발생하고있다.》, 《오염된 미군기지들에 대한 환경오염정화비용을 부담하라는 미국의 강도적요구를 절대로 받아들일수 없다.》, 《미군기지 추방하라!》라는 목소리들이 날로 높아가고있다고 전하였다.

본사기자 김혜성

극악한 살인마에 대한 남조선 각계층의 분노

남조선언론 《뉴시스》에 의하면 전두환은 2017년 4월에 발간한 그 무슨 《회고록》에서 광주인민봉기당시 봉기자들과 시민들에 대한 직승기사격을 부인하면서 이를 목격하였다고 증언한 한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모욕하였다고 한다.

그로 하여 검찰에 기소된 전두환은 여러차례 신병을 구실로 법정에 나오지 않거나 재판정에 나와서도 범죄사실은 한사코 부정하는가 하면 졸기까지 하여 각계층 인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고 한다.

얼마전 광주에서 진행된 재판에서는 당시 봉기자들과 시민들에 대한 직승기의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전두환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고 한다.

광주학살만행의 주범 전두환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은 남조선의 정계와 사회 각계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론평에서 전두환에 대한 유죄확정이 《5.18피해자와 유가족, 광주시민이 그간 받은 고통에 비하면 너무도 부족한 형량》이라고 평하면서 《재판과정에 전두환은 사과 한마디 없이 법정에 나와 선고당시에도 꾸벅꾸벅 졸았다. 안하무인격의 태도는 여전했다.》고 분노를 표시하였다고 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전두환이 유죄판결을 받은것과 관련해 《이번 재판이 5.18민주화운동당시 직승기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밝히면서 《전두환은 지금이라도 5월의 영령과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마땅하다.》, 《진상이 밝혀진만큼 발포명령과 민간인학살 등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겠다. 5.18특별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정의를 바로세우겠다.》는 립장도 피력하였다고 한다.

정의당도 《국회》보고를 통해 《광주시민들을 향한 무차별적인 직승기사격과 그에 대한 목격자들의 증언과 증명은 부인할수 없는 력사적사실》이라고 하면서 《전두환의 뻔뻔함은 겨룰자가 없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까지 단 한마디의 사죄조차 없었다. 심지어 재판받으러 가기 위해 집밖에 나와서는 〈시끄럽다〉고 호통을 치고 법정에서는 졸기까지 했다. 광주영령과 국민, 정의에 대한 기만과 우롱을 멈추지 않았다.》, 《정의당이 앞장서서 5.18력사외곡처벌법을 제정하고 력사바로세우기에 나설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한편 남조선의 《뉴시스》에 의하면 공판이 진행되는 당일 5.18기념재단과 5.18유족회를 비롯한 5.18관련단체들이 광주지방법원앞에서 《전두환엄벌촉구 문화제》를 열었다고 한다.

문화제는 《전두환》의 탈을 쓴 참가자가 시민들의 야유속에 죄수복차림으로 포승줄에 묶여 감옥에 수감되는 장면을 펼쳐놓아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고 한다.

이어 참가자들의 발언들이 있었다고 한다.

발언에 나선 5.18기념재단 리사장은 《이 재판은 단순히 명예훼손이 아니라 40년전 진실을 외곡하려는 거짓을 가리는 재판으로 보면 된다.》며 《재판은 5.18진상규명에 있어 중요한 직승기사격의 진실을 만천하에 밝히고 살인마 전두환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5.18구속부상자회 회장은 《재판장이 정의를 바로세우는 엄정한 판단을 내려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길 원한다. 5.18학살을 자행하고 직승기사격발포를 명령한 전두환을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전두환의 처벌을 계기로 5.18력사외곡근절과 진상규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5월영령들은 통곡한다, 전두환을 구속하라》, 《전두환은 5월영령들앞에 사죄하라》 등의 손패말을 든 문화제참가자들은 《전두환을 처벌하라》는 구호를 웨치고 《님을 위한 행진곡》을 목청껏 제창했다고 한다.

한편 광주전남대학생진보련합소속 학생들이 얼마전 광주시의회앞에서 《국민의힘 김종인 광주방문 규탄》, 《국민의힘은 5.18망언의원당장 제명하라!》, 《5.18특별법제정에 적극 나서라!》는 등의 구호판을 들고 시위를 벌리면서 살인마의 후예인 《국민의힘》에 대한 저주와 분노를 표시하였다고 언론들은 전하였다.

배길남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사태를 둘러싼
대립격화

최근 남조선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문제를 둘러싼 혼란과 대립이 한층 격화되고있다고 한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은 검찰총장을 내쫓으려는 시도가 《법치국가》에서 용납될수 있는것인가, 법무부 장관과 여당은 그 근본적인 리유를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하면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신나치즘》, 《무법전횡》이라고 여당과 당국을 비난하였다고 한다.

《국민의힘》소속의 초선의원들은 《징계위원회를 중단하고 법무부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으며 지어 직무정지를 제기한 법무부 장관은 사퇴가 아니라 구속감이라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한편 남조선언론 《뉴시스》는 검찰총장직무정지에 반발하는 검사들의 행동을 《검란》으로 규정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회부는 검찰총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라고 하면서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수사로 정치를 하고 국정에 개입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법사찰, 즉 정치검찰의 태도를 보였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립장을 보도하였다.

언론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떤 사람들은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다가 찍혔다고 하지만 그가 지키려고 한것은 자신의 자리와 검찰의 특권》이라고 하면서 지금의 사태는 검찰을 위한 검찰의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같은 당의 한 의원은 세상의 변화에 아랑곳하지 않고 균형과 견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서 벗어난 절대권력이 바로 오늘날 개혁의 대상이라고 하면서 검찰총장은 더이상 버티지 말고 력사의 순리를 따라야 한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결은 두 개인의 대결이 아니라 개혁과 반개혁의 력사적인 대결이라고 규정하고 이제는 검찰개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력히 성토하였다고 한다.

그러한 가운데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검찰당》이라고 불리울만큼 이미 정치세력화되였다고 하면서 《검찰권행사를 차별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놓을것》이라고 자기의 의지를 피력했다고 한다.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문제에 대해 남조선언론들과 전문가들은 검찰의 집단반발이 거세지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세력이 집권후반기에 들어선 《정부》의 통치혼란을 심화시키려 하고있다고 하면서 법무부와 검찰, 여당과 야당사이의 대립이 장기화될것이라고 평하였다.

본사기자 김광혁

정기《국회》종료를 앞두고 정쟁심화

남조선에서 오는 9일 정기《국회》가 끝나는것과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개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주요립법처리를 둘러싼 여야당사이의 대결이 한층 격화되고있다고 한다.

그에 대해 전하면서 남조선언론들은 주요립법처리시한이 정기《국회》종료를 앞두고 코앞에 다가왔지만 법무부와 검찰간 대립 및 여야의 대리전이 격화되면서 립법전쟁에도 불똥이 튀고있다고 평하였다.

어느 한 언론은 정작 주요립법은 정기《국회》를 넘어 년내 추가로 열릴 림시《국회》에서 다루어질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공수처설치를 위한 법개정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해도 고용보험법이나 필수로동자보호지원법, 공정경제3법의 경우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다. 공정경제3법은 여야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법안심사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일부는 상정되는것마저 연기되였고 상정되지조차 못한것도 있다. 상정되였어도 론의가 차일피일 미루어지고있다.》

다른 한 언론은 정기《국회》종료일을 앞두고 《공수처법》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정면충돌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추가회의가 필요한 경우 림시《국회》를 열어 《국민의 명령》인 개혁과 민생립법을 완성하기로 하였다, 가장 큰 뢰관은 《공수처법》개정안이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직무정지 및 징계청구론난과 맞물리며 야당의 《결사항전》으로 후폭풍이 예상된다, 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일정을 잡는 단계에서부터 《보이꼬트》에 들어갔다고 전하였다.

또한 《공정경제3법》도 험로가 예상된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찬성립장을 냈지만 야당에선 반대기류가 강하다, 정의당과 《국민의힘》이 손잡고 더불어민주당을 몰아붙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경우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법안의 내용차이가 크고 충돌지점도 많아 12월정기《국회》내 처리는 힘들다는것이 중요론점이라고 보도하였다.

남조선언론들은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을 촉구하는 비상롱성에 들어갔다고 보도하면서 민생은 안중에 없이 당리당략만 추구하며 정쟁만 일삼는 정치권에 대한 각계의 비난이 더욱 커질것이라고 평하였다.

본사기자 김정혁

《로조법개정안》을 반대

최근 남조선에서 전국민주로동조합총련맹(민주로총)이 전 지역적범위에서 당국의 《로조법개정안》을 반대하는 동시다발적인 총파업을 벌리였다고 한다.

《뉴시스》, 《뉴스1》을 비롯한 남조선의 여러 언론들은 11월 24일 민주로총이 《로조법개정안》철회를 위한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다음날 서울과 부산, 대구를 비롯한 각 지역에서 20여만명의 참가밑에 《로동개악저지! 전태일3법쟁취! 민주로총 총파업총력투쟁 전국동시다발대회》를 분산개최하는 방식으로 총파업을 벌렸다고 전하였다.

언론들은 서울에서 진행된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단체협약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생산 및 주요업무시설점거금지 등의 내용이 재계의 요구를 수렴한 독소조항이라고 하면서 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였다고 전하였다. 서울뿐아니라 부산과 대구를 비롯한 각 지역에서 벌어진 총파업투쟁에서 참가자들은 《정부》와 여당이 로동자들의 생산현장점거투쟁을 금지하고 단체협약기간을 연장하도록 《로조법》을 개정하려는것은 로조를 무력화시키는 로동개악이라고 규탄하면서 《로조법개정안》을 즉시 철회하고 《전태일3법》을 제정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한편 정의당은 《정부안에서 특수고용로동자의 로조설립권리가 통채로 빠졌고 협약과 상관없는 단체협약유효기간 연장, 생산현장에서 파업금지 등이 들어갔다.》고 하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로조법개정안》의 부당성을 까밝혔다고 한다.

《로조법개정안》에 대한 로동계의 강한 규탄과 반발이 날로 높아가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되는것은 아니다. 당내에서도 정부안에 대해 대부분 우려하고있다.》, 《로동계가 우려하는 독소조항은 국제로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로동계의 반발을 무마해보려 하고있다고 한다. 하지만 남조선 각계는 더불어민주당이 《로조법개정》방향에 대한 명확한 처방을 내놓지 않아 혼란만 가중시키고있다고 하면서 대책을 취할것을 요구하고있다고 한다.

한편 남조선언론들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기업계에서는 《로조법개정이 〈친로동적〉이다.》, 《해고자, 실업자의 로조가입이 허용된다면 자동으로 로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도 보다 강화돼 기업 어려움이 가중할수밖에 없을것이다.》라고 하면서 당국의 《로조법개정안》을 반대해나서고 여기에 《국민의힘》도 해당 《법》들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수 있다고 떠들면서 기업계에 힘을 실어주고있다고 보도하였다.

남조선의 언론들은 로동계와 기업계사이, 여당과 야당사이의 상반되는 의견차이로 하여 《로조법개정안》의 향후 《국회》심사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평하고있다.

본사기자 안권일

《부동산정책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남조선에서 당국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각계층의 비난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는 가운데 얼마전 《머니투데이》가 《국민청원게시판》에 《정부의 부동산정책때문에 결혼을 포기하였다.》는 청년의 글이 올라 관심을 모으고있는데 대해 보도하였다.

자신을 《결혼을 앞둔 30대 직장인》이라고 소개한 그는 《올해초부터 결혼을 계획하고있었으나 세금을 착실히 내고 매일 노력하며 살아온 사람이 서울에 전세집 하나 구하기 힘든 광경이 펼쳐지고있다.》고 하면서 《주택난으로 결혼을 거의 포기하기까지 이르고있다.》고 울분을 터치였다고 한다. 이어 그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빈번히 실패하는것을 수년간 바라만 보며 그래도 적게나마 월급을 모아 어떻게든 집을 사보려 노력했다. 그런데 올해 중순 령끌(령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해서라도 살수 있던 서울 제일 끝자락 아빠트마저 폭등해 아예 포기상태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그는 《정부》의 특별공급에 대해서도 《수백대일에 이르는 경쟁률속에서 당첨되는자만 행운을 거머쥐고 나머지 99%는 헛된 희망을 품으며 사는 신세가 됐을뿐》이라고 탄식하면서 《임대차3법을 통과시킨 뒤 지금 전세값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나 있느냐.》고 반문한 뒤 《지난 1~2월에 매매하던 집값이 지금 전세값으로 뒤바뀌였다. 그마저도 나오는 전세집이 거의 없어 부르는게 값》이라고 탄식하였다고 한다.

언론은 이밖에도 《정부가 폭등시킨 집값을 원상회복시키라》는 제목으로 또 다른 사람이 올린 글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전하였다.

본사기자

《아무도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 《제발 도와달라》
남조선 피해지역 주민들이 호소

올해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들에 련이어 들이닥친 태풍과 무더기비는 례년에 보기 드문 재앙을 몰아왔다.

특히 센 바람과 폭우로 하여 수많은 살림집들과 공공건물이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파괴되거나 침수되였다.

세계적인 보건위기와 함께 자연재해가 겹쳐든지도 수개월이 지났지만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상안정은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다.

남조선에서는 찬바람 불어오는 지금 이 시각까지도 피해지역 주민들이 재난을 가시지 못하고 극심한 생활난을 겪고있다고 한다.

알려진것처럼 올해 남조선에서는 기상관측이래 가장 긴 장마와 폭우, 3차례나 련이어 들이닥친 태풍으로 하여 사망자와 부상자들이 발생하고 살림집과 농경지, 시설피해가 5만 9 015건, 재산피해액은 약 12억US$로 집계되였다고 한다.

남조선에서 태풍과 폭우로 인한 재산피해액이 10억US$를 넘어선것은 2006년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은 피해가 발생한지 3개월이 넘도록 여전히 특별재난지역선정기준과 같은 문제를 놓고 옥신각신만 할뿐 피해복구를 위한 초보적인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고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결국 자연피해를 입은 남조선의 많은 지역 주민들은 겨울철에 들어선 지금까지도 림시주택과 공공거주시설에서 고통을 겪고있다고 한다.

폭우로 온 마을이 물에 잠긴 남조선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에 사는 주민들은 집회를 열고 1979년에 《정부》가 북의 오성산에서 잘 보이게 《선전》촌으로 만든다고 하면서 낮은 지대에 마을을 조성해놓았다, 해마다 큰물피해가 발생하고 올해에도 피해가 났다, 《국무총리》까지 와서 《위로》하고 사진까지 찍었지만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있다, 주민들의 고통을 직접 보고서도 이렇게 외면하니 정말 놀랍다고 개탄하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온 한해 큰물피해복구를 하느라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지냈다, 더는 못 참겠다, 북에 대한 선전에 평생 리용당한 마을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할수 있도록 당국이 시급히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하였다고 한다.

지난 여름 집중폭우당시 룡담언제방류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전라북도와 충청도지역 주민들은 얼마전 언제를 료해한다고 돌아치던 《국회》의원들의 차를 가로막고 그앞에서 무릎을 꿇고앉아 《1년 지은 농사가 하루아침에 다 물건너갔다. 아무도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제발 도와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였다고 한다.

한편 폭우로 하여 1 000여세대의 집이 물에 잠기고 700여마리의 소들이 죽는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 구례군 양정마을주민들은 100일이 넘도록 원인규명과 피해배상을 요구하고 기다렸지만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면서 나서지 않고있다, 언제관리를 잘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명백한데도 쥐여준 배상금은 몇푼밖에 안된다, 살림살이가 완전히 파탄되여 복구하려면 오랜 세월이 걸릴것이라고 울분을 터치였다고 한다.

올해에 들이닥친 태풍과 큰물로 해안도로와 방파제 등이 쑥대밭이 된 부산시 기장군의 주민들도 당국에 해안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 초강력복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였지만 대책이 없다고 하면서 분통을 터뜨리였다고 한다.

본사기자 강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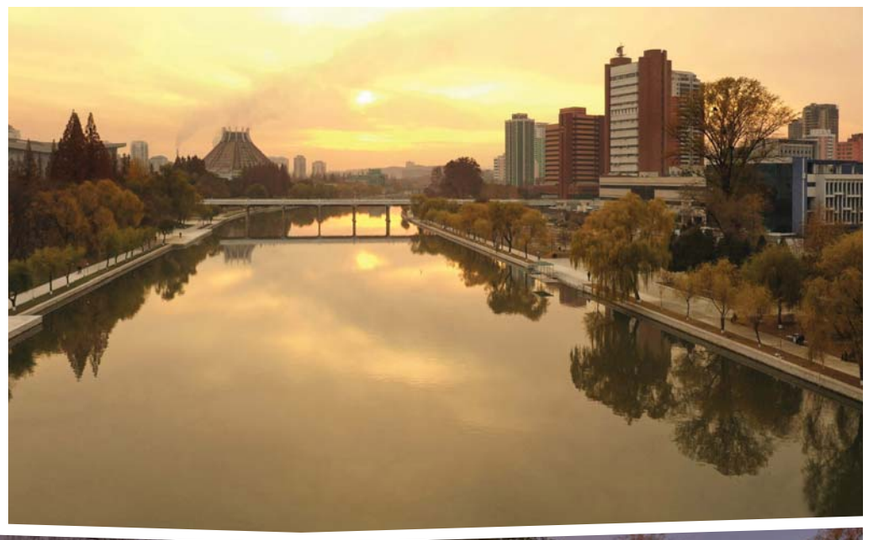
더욱 아름다워진 보통강반

보통강의 풍치가 더욱 아름답게 변모되였다.

보통강유보도개작공사는 연 22.4㎞의 호안석축과 4만여㎡의 콩크리트포장, 11만여㎡의 잔디심기, 수십개소에 달하는 휴식구보수 및 신설, 2개의 다리와 2개의 정각보수 등을 진행하여야 하는 규모가 큰 국토관리사업이다.

평양을 사회주의문화의 중심지로 더 잘 꾸려갈 일념안고 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불과 1개월만에 보통강유보도개작공사를 결속하였다.

본사기자



활발해지는 재자원화

인구의 끊임없는 증가와 경제의 급속한 발전, 도시화의 추진에 의하여 폐기폐설물과 생활오물의 산생량이 나날이 늘어나고있는것은 오늘날 지구상의 모든 나라와 지역에 있어서 피할수 없는 난문제로 되고있다.

하기에 많은 나라와 지역들에서 이러한 폐기폐설물과 오물에 의한 환경오염을 막고 이를 생산활동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재자원화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공화국에서는 보다 깨끗한 생태환경을 마련하고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는 재자원화사업을 법적으로 담보할수 있는 재자원화법을 채택한데 맞게 전국각지에서 쓸모없이 버려지던 폐기폐설물과 생활오물로 여러가지 건설자재들과 집짐승먹이를 비롯한 제품들을 생산해내고있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일찌기 수매사업을 잘하여 파고무, 파유리, 파지, 빈병, 파비닐 등을 적극 동원리용하는것은 생활필수품생산을 늘이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면서 그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내부예비를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고 생산자대중의 창발성에 의거하여 여러가지 인민소비품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게 하는 대중적인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을 발기하시였으며 세계적인 발전추세와 나라의 실정에 맞는 재자원화의 본보기공장도 일떠세우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현시기 재자원화사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헤아리시고 자력갱생의 기치드높이 온 나라가 재자원화사업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시였다. 어느 한 공장을 찾으시여서는 생산자들이 쓸모없이 버리던 폐기품들을 재생하여 생산에 리용함으로써 국가에 많은 리익을 준 애국적소행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하기에 지금 어느 부문, 어느 단위 그리고 어느 가정에서나 회수하여 재생리용할수 있는것은 철저히 회수, 재생리용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각지 신발공장들에서도 파수지와 파고무를 리용한 재자원화기술을 확립하여 생산을 늘이고있다.

가벼우면서도 질김도가 좋은 공기발포식수지창을 만들기 위해 파수지에 유연제, 개질제를 도입하고 지난 시기 버리던 파스티롤수지도 재자원화하여 신발창자재를 절약하면서도 종전의 자재량으로 더 많은 신발을 생산해내고있다.

전천군수지일용품공장에서 파수지로 생산한 보도블로크형타는 읍지구의 걸음길포장작업에 널리 쓰이고있다.

함흥시 흥덕구역 흥덕오물처리공장 또한 오물을 보물로 전환시켜 구역살림살이에 적지 않은 보탬을 주고있는 보배공장으로 불리우고있다.

활발히 추진되는 재자원화사업은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더욱 추동해주고있다.

장은일

통배추김치, 백김치, 깍두기… 《참 별맛!》

《김치가 별맛이다. 또 주문하려고 한다.》, 《자주 사먹는데 정말 편리하고 맛도 좋다.》…

요즘 《버들빛》상표를 단 김치나 식혜를 맛본 사람들 누구나 하는 말이다.

평양시 보통강구역김치공장에서는 《버들빛》상표를 단 여러가지 종류의 김치와 식혜류, 절임류 등 30여가지의 제품들을 공업적방법으로 생산하여 구역안의 주민들과 상점, 봉사망들에 공급하고있다.

공장의 박영금지배인은 《우리 공장에서 생산한 찡하고 시원한 통배추김치, 감칠맛이 강한 백김치, 구미를 돋구는 얼벌벌한 깍두기는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있다.》고 말하였다.

공장에서는 전통음식인 김치의 질제고에서 선차로 나서는 원자재의 선도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김치주원료인 배추, 무우의 선도와 영양물질이 최대로 보장보존되도록 저온저염절임방법을 도입하여 김치의 맛과 향기에서 새로운 개선을 가져왔다.

또한 김치양념의 조미료배합과 숙성시간을 합리적으로 하여 김치의 고유한 맛을 적극 살려나가고있다.

김치만이 아니라 공장에서 생산하는 두릅절임, 살구절임, 도루메기식혜, 가재미식혜를 비롯한 절임류, 식혜류도 독특한 맛으로 하여 사람들이 즐겨 찾는 제품들이다.

본사기자 김철

민족시문학계의 재사들과 그 유산

리달과 시 《풋보리를 베는 노래》

리달(16세기 중엽)은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시인이다.

리달은 백광훈, 최경창과 함께 《삼당시인》으로 불리웠다.

그는 농민들을 비롯한 평범한 보통사람들의 생활과 정신세계를 생동한 시적화폭으로 보여주었다.

시 《풋보리를 베는 노래》, 《이삭줏는 노래》 등은 그러한 주제의 작품들이다.

그는 당대의 야속한 현실에 대한 저주의 감정을 반영한 시들도 적지 않게 창작하였다.

시 《제목없이》, 《마천령에서》, 《롱나루에서》 등은 그러한 주제의 우수한 작품들이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하고 공평치 못한 당대 현실에 대한 불만을 품고있었으나 창작에서는 폭로비판의 기백이 높은 작품들은 남기지 못하였다.

그의 시들은 민족적정서와 향토적색채가 짙게 서려있으며 시적형상이 참신하고 표현이 소박할뿐아니라 부드러운 정서를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허균, 허란설헌 등의 창작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풋보리를 베는 노래》

농사집 며느리 저녁거리 없어
비맞으며 보리베여 숲길로 돌아오네

생나무 비에 젖어 불인들 잘 일랴
굶주린 아이들은 치마잡고 우는구나

작품은 봉건사회 농촌생활의 한 측면을 생동하게 펼쳐보이고있다.

농사집의 젊은 며느리가 저녁거리가 없어 비를 맞으며 채 익지 않은 보리를 베여오면서 부끄럽게 여기는 서정적주인공의 감정세계를 섬세하게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12월의 절기와 민속

12월의 절기들에는 대설과 동지가 있다.

대설은 한해치고 눈이 가장 많이 내리는 절기라는 말이며 대설에 눈이 많이 내리면 다음해에 풍년이 들고 그해 겨울은 푸근할것이라는 말이 전해지고있다.

동지는 겨울에 다 이르렀다는 의미에서 일러오는 말이며 동지날에는 한해가운데서 해가 제일 늦게 뜨고 일찍 진다. 따라서 낮이 제일 짧고 밤이 길다.

이 시기 우리 선조들은 거두어들인 낟알을 상하지 않게 잘 보관하고 씨붙임한 밀보리밭에 거름을 내였으며 다음해농사에 쓸 농기구들도 손질해두었다.

이 절기들에 우리 선조들이 즐겨 해먹은 음식들로서는 팥죽, 랭면, 동치미, 수정과 등이였는데 그중에서도 이름난것은 《작은 설날》이라고 부르는 동지날 쑤어먹는 붉은 팥죽이였다.

동지날에 팥죽을 쑤어 이웃들과 나누어먹으면서 서로의 화목을 도모해온것은 오랜 세월 우리 선조들속에서 전해져내려온 하나의 풍습이였다.

이 시기 진행된 민속놀이들은 어린이들의 제기차기, 공차기놀이와 장치기 등을 들수 있다.

올해의 대설은 12월 7일, 동지는 12월 21일이다.

본사기자

사화

최무선이야기 (7)

돌쇠는 어린애마냥 땅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있었다.

사실 찾아간것부터가 잘못이였다. 당시 지배층들은 신돈을 참살하고나서는 자기들의 토지를 회복하느라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날뛰고있었다.

특히 렴흥방, 림견미의 일파들이 물푸레나무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함부로 때리고 토지를 빼앗기때문에 본래의 국가토지문서는 실제상 아무런 효력도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의 농장은 여러 고을을 합친 큰 농장으로 되였다. 그자들은 심지어 가병을 두었으며 노비도 몇백, 몇천명에 이르렀다.

세신대족들은 백성들을 2중 3중으로 억압착취하기에 온갖 정신이 다 팔려있었다.

그렇기때문에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에만 눈이 어두운 그들은 당장 자기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는 한 외적격퇴를 위하여 개혁적인 사업을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재정을 투자할 성의도 있을리가 없었다.

사실 화약제조를 위해서는 큰 공장을 건립해야 하고 설비와 원료의 조달 등 막대한 비용이 들것이였다. 더우기 원료문제는 간단하지 않았다. 례컨대 류황 같은것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와야 하며 기타의 원료들도 막대한 로력과 시일 또는 비용이 필요하였다.

바로 그것때문에 통치배들은 이 사업을 외면하고말았던것이다.

이 일로 하여 심대한 타격을 받았으나 그렇다고 해서 비탄에 잠겨 사업을 포기할 최무선이 아니였다. 물론 그것이 최무선의 혼자힘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는 일인것은 사실이였다.

최무선은 좋은 기회를 보아 다시 조정에 건의하기로 결심하고 자기의 연구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기에 일심전력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새로 더 성능이 좋은 화약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여 그 명칭을 《대장군》, 《2장군》, 《3장군》 등으로 불렀다.

또한 연구는 화약에만 그친것이 아니라 화약무기 즉 화통(총포)과 화전(불꽃달린 화살) 등을 만드는데도 성공하였다.

그동안에도 왜구들의 침노는 그칠 날이 없어 놈들은 남쪽바다뿐만아니라 평안도 안주에도, 동해안 강릉에도 기여들군 하였으며 그 기세는 여전히 오만하기 이를데 없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오면 정부는 여전히 포왜사에게 빈약한 토벌군을 붙여 내려보내여 처리하는 식으로 대처하였다.

최무선은 이와 같은 조치가 나라의 안정을 영구히 할수 없다는데 대하여 력설하며 화약과 화약무기제조에 조정이 관심을 돌릴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들어주지 않았다.

그무렵에도 백성들은 조국방위를 위하여 자기의 애국적열성을 다하였으며 목숨을 바쳐 용감히 싸웠다.

최무선이 하는 일은 차츰 사람들속에 널리 알려졌으며 그를 지지하는 사람이 늘어갔다. 그리하여 그들은 조정의 무심함을 함께 통탄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대부분은 최무선과 같은 미미한 관리들이 아니면 모두 미천한 사람들이였기때문에 연구사업을 추진시킴에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큰 도움을 줄수 없었다.

해는 흘러갔다.

최무선은 여러가지로 깊이 생각한 끝에 세신대족들이 권세를 장악한 조정에 더 건의하기를 단념하였다. 그는 직접 진두에 서서 왜구를 물리치며 싸우는 장군에게 호소하면 능히 자기의 진의와 연구의 진가를 알아주리라고 생각하게 되였던것이다.

이 시기에 전라도에 기여든 왜구들을 물리칠 때 가장 용감한 사람들로 수군을 편성하여 크게 공을 세운 정지장군과 강화도에 기여든 수많은 왜구를 적은 병력을 가지고 섬멸한 장군 라세가 널리 명성을 떨치고있었다.

그러므로 이 장군들에 대한 조정의 신임이 컸고 백성들의 인망도 매우 높았다. 최무선은 이 장군들과 만날 기회를 노리고있다가 틈을 얻어 강화도에 건너가 라세를 만났다.

뜻있는 학자와 지용을 겸비한 장군은 서로 첫눈에 뜻이 맞았다. 최무선은 서해물이 넘나드는 해변에서 화약의 위력을 시험해보았다. 화약은 비상한 위력을 발휘하였다.

흙먼지는 구름을 이루고 요란한 소리는 하늘과 바다에 진동하며 멀리 수평선으로 울려갔다.

라세는 그 위력에 못내 경탄을 금치 못하며 최무선의 노력에 대하여 몇번이나 찬양하고 치하하였다.

시험은 계속되였다. 화통이며 화전, 각종의 무기들이 불을 뿜거나 혹은 불을 달고 정확하게 과녁을 꿰뚫었으며 또한 목표물에 불을 붙여놓았다.

유모아

짝신도 제멋

한 관리가 아침에 일을 보러 나가면서 각각 흰색과 검은색의 신발을 신고 말우에 올라 아무 생각없이 가는데 말시중군이 그것을 보고 신을 짝짝이로 신었다고 말해주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내가 색갈이 서로 다른 신을 신었다고 너무 걱정할게 없다. 왼쪽에 있는 사람은 하얀것을 보고 검은것은 보지 못할것이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검은것만 보게 되고 하얀것은 보지 못할게 아니냐. 그러니 상심할게 없다.》

주소: 평양 통일신보사 (해외동포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289 편집위원회